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05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용지 부족' 오전에 알고도...'주먹구구' 대응만	정치	주요뉴스
2	"내가 진짜 유일 후보"...결국 무효표만 108만 표	정치	주요뉴스

## (1)기사/뉴스요약

### <앵커>

중앙선관위는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정황이 이미 투표 당일 오전에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투표 지연이란 초유의 사태가 터지기까지 몇 시간이나 대응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어서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보고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건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11시 40분경에 해당 송파구위원회에서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위원회로 일단 대책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응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시간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두어 시경 후에 그때부터 불출이 이뤄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한 번에 충분한 수의 용지를 전달하지 못해 이후 추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투표용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1차로 불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다고 연락이,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2차로 또 불출을 하고...]

상황은 심각했지만 대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인력 부족'과 '개표 준비'를 들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저희 위원회 전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소로 이동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 선거인수가 아닌 50%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한 건,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많이 남을 수 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같은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앙선관위는 외부 인사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단 계획이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내부 체계의 조사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핵심: 중앙선관위가 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정황이 이미 투표 당일 오전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 (2)기사/뉴스요약

###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개표도 뒤늦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만 108만 표에 달합니다. 투표장에 가고도 아예 아무도 찍지 않거나, 둘 이상을 찍는 등 잘못 투표한 경우들인데,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추천과 기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저마다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단일화 결과에 불복해도 제약이 없다 보니, 단일 후보, 시민 후보, 유일 후보, 심지어 진짜 유일 후보를 표방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철안/40대 유권자 : 전혀 몰랐어요. 다만 진보·보수만 색깔로 구별을 했던 거지. 정말 현수막만 보고, 또는 투표용지를 보고 마지막에 투표하는 게 아닌가 (싫습니다.)]

[20대 유권자 : (투표장에) 가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 모르고 투표한 거에 가까워서.]

몇 장 안 되는 선거 공보물로 교육 공약을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김범수/70대 유권자 : 홍보물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의 비전을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108만 8천여 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 43만 4천여 표의 2.5배에 달합니다.

아예 투표장에 가지 않은 기권표와 달리,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아무도 안 찍거나 둘 이상을 찍는 등 잘못 기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후보 8명이 난립한 서울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30만 표로,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보다 다섯 배 넘게 많았습니다.

시도 교육감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다, 비리와 파벌 다툼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정치적 색깔이 짙어진 만큼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연계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나 정당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현재 교육감이 사실상 위장된 정파 논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제도적으로 이미 이견 시효를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후퇴시킬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핵심:** 이번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만 108만 표에 달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일일키워드

순 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시라트	이슬람에서 사람이 죽은 뒤 최후의 심판 때 천국으로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를 뜻하는 개념으로, 꾸란과 하디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흔히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다리'로 묘사되며, 선한 사람은 무사히 건너고 죄 많은 사람은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헬싱키 협정	냉전 시기 동서 진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체결한 국제적 합의로, 공식 명칭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CSCE Final Act)'이다. 협정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었는데, 이를 외교가에서는 '세 개의 바구니(Three Baskets)'라고 불렀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